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호 [루게 제 24799호] 주제 104 (2015)년 1월 21일 (수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안정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제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화, 특상화를 비롯한 운동신발을 보시고 공장에서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종업원들의 열의가 대단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새 제품개발정형도 자세히 알아보고 인민들의 기호와 요구, 미감에 맞는 신발들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의 신발공업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3년 3월에 진행된 전국경공업대회에서 우리 당은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믿고 가까운 시일안에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킬 결심과 의지를 선포하였다고 하시면서 류원신발공장의 생산실태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88년 11월에 창립된 류원신발공장은 우리 나라

의 첫 사출운동신발생산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신발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보시면서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질 좋고 맵시있는 신발들을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신 장군님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온 나라 곳곳에 일떠선 경공업생산기지들은 큰

것으로부터 자그마한것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몸소 써를 뿌리시고 하나하나 품들여 마련해주신 고귀한 유산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여 놓으신 경공업의 튼튼한 토대와 잠재력을 총폭발시킴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더 많은 인민소비품이 차례지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생산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속에서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제품진렬실에 전시된 아동신발, 봄가을신발, 여름신발, 겨울신발들과 축구화, 롱구

말고 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류원신발공장에서는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신발,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신발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인민들이 쓰려고 하지 않는 질이 낮은 제품은 아무리 많이 생산하여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생산량을 늘이는것과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편리하면서도 맵시있고 가벼우면서도 질긴 신발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발도안을 선행시키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의 정보화, 자동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이와 함께 신발생산용품유와 수지, 각종 기초화학제품들의 국산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그 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상요구

와 문화적수준에 맞는 신발, 세계적으로 이름난 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신발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장 발전전략을 잘 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제품생산과 질제고, 설비관리와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류원신발공장을 생산공정의 현대화에 있어서나 종업원들의 노동조건에 있어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일신시키자고 하시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서 모두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

소비품은 하나하나가 인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원만히 보장하는 문제는 단순히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시제품이나 견본품을 만들어 전시하거나 상점에 진열하는데 그치지 말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공업

부문을 비롯한 련관부문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인민들앞에 지닌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책략을 바로세우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공업부문이 용을 쓰며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온 나라가 발을 맞추어 인민소비품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가까운 기간에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숙원을 기어이 풀어드리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류원신발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신발생산과 제품질제고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류원신발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뜻깊은 율해에 인민들에게 질 좋고 맵시있는 신발들을 더 많이 안겨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빛나게 관철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온 민족이 펼쳐나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역사적인 선언사를 받아안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가슴가슴은 지금 새로운 신심과 낙관으로 세차게 고동되고있다.

희망찬 새해의 첫아침 전체 조선민족이 힘을 합쳐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것을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선언사는 위대한 원수님시대 통일대진군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장엄한 회상으로서 온 겨레의 심장을 뜨겁게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언사는 온 겨레의 절절한 통일념원과 시대의 지향을 반영하여 뜻깊은 올해를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강령적 지침이다.

돌아보면 삼천리강토에 해방만세의 환호가 진감하던 격동적인 그대 우리 민족이 오늘처럼 장장 70년세월 분열의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고 과연 그 누가 상상이나 하였는가.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지만 유독 우리 민족만이 아직도 분열의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 겪고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안락까운 일이며 누구나 다 통분할 일이다.

반민권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뛰어난 슬기와 재능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외세가 강요한 분열의 역사를 팔장 내지 못하며 일흔번째 해를 맞이하게 된 것처럼 참을 수 없는 수직이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조국통일을 절절히 갈망해온 우리 민족이 조국해방 70년,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올해에 조국통일의

돌과구를 열어나지 못한다면 통일은 더욱더遥远해질 것이며 이 땅에는 영구분열의 위험이 한층 짙게 엄습하게 될것이다.

우리 민족은 지금 자주통일이나 영구분열이나 하는 중대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있다.

우리 민족은 뜻깊은 올해를 절대로 헛되이 흘려보내서는 안되며 시대와 역사는 온 겨레가 한사람같이 펼쳐나 조국통일의 돌과구를 열어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허용할 수도 없다는 확고한 신념과 강렬한 통일외,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 위한 비범한 용단과 승고한 민족애가 구질구질 맥박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언사는 세계 조국통일의 진군길에 나선 온 겨레에게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선언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조국해방 일흔년이 되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북남관계의 대전환의 해, 대변혁의 해로 빛내일 일념을 안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1. 온 겨레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선언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관철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서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언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표제이며 고무적기치이다.

악화된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도, 진정화약이나 다름없는 조

선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고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실천적인 방도도 여기에 있다.

선년사의 중대제안들이 실현된다면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이 일어나고 대결과 적대분열이 종결될 수 있는 삼천리강토에 6.15시대와 같은 경이적이며 환희로운 화폭이 장엄히 펼쳐지게 될것이다.

이 땅에 태를 묻고 민족의 넋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그토록 대담하고 격동적인 애국애족의 호소에 어찌 가슴 높이고 심장이 뚝뚝 울지 않겠는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진도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게 될 올해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단호히 대처해나가기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통일의 앞길을 개척해나가기 한다.

우리 나라 분열의 장본인 미국은 지금 거세게 분출하는 우리 겨레의 통일열기와 화해단합기운을 두려워하며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을 가로막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우리 민족을 리간시키고 대결을 고취하며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있는 일체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침략책동에 북과 남이 공동으로 단호히 대처해나가기 한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드높은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2.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기!

북과 남은 언제든 통일조국의 한지붕 밑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한피줄을 이은

한겨레, 한동포이다.

통일의 길에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대하지 않고 그 누가 누구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지향한다면 함께 손잡고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립장이다.

동족을 《적》으로 보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반대하면서 일방적인 《세계통일》을 추구한다면 언제가도 북남관계는 개선될 수 없다.

승승장구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몇몇 인간쓰레기들을 부추겨 날리는 어지러운 종이장꾸리로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누구나 눈앞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북남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하며 동족대결에 광분하는 한중도 못되는 반통일분자들의 망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한다.

민족분열 70년이자 조선전쟁이 일어난 지 65년이 되는 올해를 동족을 반대하여 외세와 함께 벌리는 전쟁연습이 없는 첫해, 조선반도의 평화가 시작되는 역사의 해로 만들자!

해마다 강행되는 북침전쟁연습이 《년례적》이어서 중단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방어적》이라고 정당화해나선다면 백년이 가도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없고 핵전쟁의 위험을 가질 수 없다.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관계개선을 해치고 민족의 머리에 핵참화를 불어오는 외세의 합동군사연습을 단호히 반대배격해나서야 한다.

3. 북남관계는 관계개선과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대화와 협상을

적극 전진시켜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서 북남관계의 책임은 그 어느때보다 무겁다.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관계개선의 제반 문제들을 풀어나갈 준비가 되어있으며 북남대화와 관련한 중대립장을 천명하였다.

북과 남은 더 이상 별치 않은 문제를 가지고 무의미한 언쟁을 하면서 시간과 정력을 헛이 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는 진실로 개선할 의지가 없이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거나 정략적 목적을 리용해하려는 대화는 백해무익하며 시간낭비일뿐이다.

남조선당국은 대결과 전쟁방에 초래할 것이 없는 무모한 《세계통일론》과 결별하고 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며 평화적이고 적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 새로운 자세에서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길로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은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역사의 장엄한 흐름에 적극 합류해나서야 하며 그에 제동을 걸거나 해방해서는 안된다.

4. 북과 남의 각계각층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합, 민족대단결의 승고한 리념밑에 통일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단호히 호소한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불타는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펼쳐나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 주제 104(2015)년 1월 20일 평양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서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 진행, 채택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선언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부문과업관철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가 2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회의 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님을 통일외,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조국해방 일흔년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등의 구호들이 회의장에 나붙어있었다.

양형섭동지, 김양건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우당위원장, 근로단체, 사회단체 책임인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맹 부총본부 관계자들을 비롯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연합회의에서는 의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선언사를 높이 받들고 조국해방 일흔년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국해방 일흔년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희망찬 새해의 첫아침에 하신 역사적인 선언사는 온 겨레의 절절한 통일념원과 의지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통일애국의 기치이며 전체 조선민족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거족적운동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호소이라고 강조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선언사에서 밝혀주신 조국통일과

업을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에서 확고히 들고나가야 할 분열의 대강으로 받아안고 그 관철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우에 썩어있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용단과 불타는 통일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신장시켜서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과감히 짓부셔버리며 올해에 기어이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도록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이미 올해에 조선반도에서 동족을 반대하여 외세와 함께 벌리는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을 중지하기 위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조국해방 일흔년을 민족적대경사로 경축하려는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따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데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일치단결하여 민족의 머리에 핵참화를 불어오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단호히 배격하고 올해를 동족을 반대하여 외세와 함께 벌리는 전쟁연습이 없는 첫해,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시작되는 역사의 해로 만들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은 더 이상 남조선당국을 동족 대결로 부추기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반도문제에 관심이 있는 유관국들과 국제사회도 동족사이의 대결을 부추기지 정세를 악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고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 운동을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피죽도 갈고 언어도 같은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서로 증오하고 핏줄은 같은 적대와 대결의 길로 나가서는 안되며 비극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적대시하고 반대하면서 《세계통일》을 추구한다면 언제가도 북남관계는 개선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전체 조선민족은 눈앞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반통일세력의 체제대결, 《세계통일》책동과 동족대결을 생리 못 하는 한중도 못되는 민족반역의 무리들의 적대적망동을 단호히 배격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조국통일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과 남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으로 합의하였으며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을

을 풀어나갈 때에만이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북남당국은 더 이상 대결의 상대로 서기 아니라 북남관계발전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선도자로 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대담하게 풀어나갈 준비가 되어있으며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로 나 오려면 중단된 교류협력속도 재개하고 부분별화담도 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올해에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이며 우리는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민족의 기대와 의사에 맞게 실질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진정성》이 아니라 허심탄회한 성의와 이량을 우롱, 도둑하며 《대화》의 전체조건은 없다.》고 하면서도 조건부담을 얹어놓는 불순한 술책을 그만두어야 하며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해치는 반공화국대결책동과 껍짓이 결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는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대담하게 풀어나갈 준비가 되어있으며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로 나 오려면 중단된 교류협력속도 재개하고 부분별화담도 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불타는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펼쳐나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유관국들과 국제사회가 조선반도에서 동족대결을 부추기며 정세를 악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며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불타는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펼쳐나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유관국들과 국제사회가 조선반도에서 동족대결을 부추기며 정세를 악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며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불타는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펼쳐나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유관국들과 국제사회가 조선반도에서 동족대결을 부추기며 정세를 악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며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불타는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펼쳐나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유관국들과 국제사회가 조선반도에서 동족대결을 부추기며 정세를 악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며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불타는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펼쳐나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유관국들과 국제사회가 조선반도에서 동족대결을 부추기며 정세를 악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며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불타는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펼쳐나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불타는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펼쳐나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유관국들과 국제사회가 조선반도에서 동족대결을 부추기며 정세를 악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며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불타는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펼쳐나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불타는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펼쳐나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불타는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펼쳐나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불타는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펼쳐나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불타는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펼쳐나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불타는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펼쳐나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불타는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펼쳐나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조선중앙통신】

